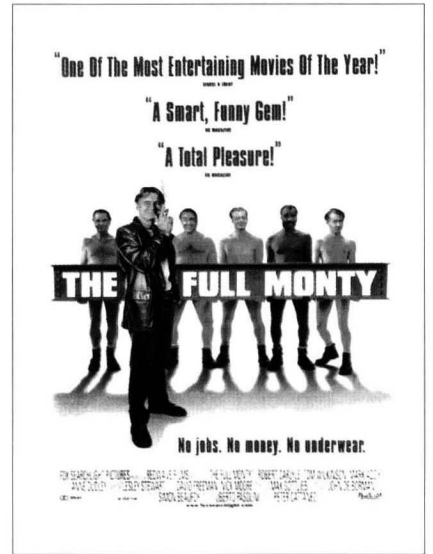


윙통성 제로 살짜쿵 소심한 '곰씨'와 매사 부정적이고 잔머리가 발달한 '오리군'이 '백수 주제'에 감히 이 땅의 모든 백수들에게 희망을 들려준다.



영화 <풀 몬티>와 핫도그가 그리고 쓴 《곰씨와 오리군》

경전 같은 말쑤는 'Let it be'가 아니라 'Full monty'!

반갑지 않은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는 시절이다. 오십 육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이라는 '오륙도', 사십 오세가 정년이라는 '사오정', 삼십 팔세면 명예퇴직을 선택해야 한다는 '삼팔선', 이십대 태반이 백수더라는 '이태백'... 오십 육세에서 이십대까지, 연령의 하향 곡선은 이미 바닥을 쳐버렸다. 그것 참, 쓰고 보니 뒷맛이 씁쓸하다.

영국 영화 <풀 몬티>는 1998년 국내 개봉 작품. 제철소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요크셔 산업타운, 실직한 다섯 남자가 생계를 위해 여성관객을 앞에 두고 스트립을 펼쳐 보이는 코믹하고도 씩씩한 영화다. 영화가 개봉될 당시, IMF 지원이라는 된서리를 맞고 가까스로 정신을 차릴 무렵이라 '풀몬티', 말 그대로 훌쩍 벗지는 못한다는 자존심이 우리에게겐 있었다. 다섯 남자가 지그재그로 한 바퀴 돌고서는 치부를 가리고 있던 해군모자를 보기 좋게 던져버렸을 때, 우리가 느낀 감정은 사실 동감이 아닌 연민이었으리라. 그러나 2004년 다시 본 <풀 몬티>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가 되어 버렸다. 그 속에 우리의 '오륙도'와 '사오정'이, '삼팔선'과 '이태백'이 마지막 희망을 담보받고 어색한 스트립을 펼쳐 보이는 까닭이다. '어디까지 벗어나 보자'며 호기심 가득했던 마음은 간데 없고, 엔드크레딧이 올라갈 때면 절절한 공감과 함께 '벗어 거듭날 수 있다면 까짓것'하는 비장함마저 생겨난다.

거침없이 벗어 환골탈태하기에 사회라는 무대가 낯선 '이태백'이라면 카툰에세이 《곰씨와 오리군》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라는 상투적인 부제가 붙어 있지만 이 책에는 유별난 구석이 많다. 윙통성 제로 살짜쿵 소심한 '곰씨'와 매사 부정적이고 잔머리가 발달한 '오리군'이 '백수 주제'에 감히 이 땅의 모든 백수들에게 희망을 들려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 책이 주는 희망이 어찌 수상하다. "백수의 기본 증상...얼굴이 두꺼워지고 배짱이 두둑해진다", "출근이라고...아침에 직장에 나가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 있다고 하던데"라며 카툰의 끝마다 불쌍사나운 문장으로 심사를 불쑥 건드린다. 심지어 저자가 쓴 '백수에찬'에는 "백수는 무위자연의 큰 뜻을 따른다. 그 안에서 유용자적을 즐겨야 비로소 진짜 백수가 되는 것이다"라며 입장을 지르고 있기까지 하다. '이태백'을 위한 눈높이 맞춤책이라더니, 이렇게 엉뚱한 법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법도 하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에 책의 따뜻한 위무가 숨어 있다. 방세를 받으러 온 주인 '염 사장'을 피해 천장에 붙어서는 "나도 모를 능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오리군, 백수 오리군을 위로하더니 슬그머니 돌아서서 실패한 인생이라며 핸드폰의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친구 '닭코스' 등 웃지도 못할 곰씨와 오리군의 백수일기는 '이태백'의 자존심을 모조리 벗겨낸다. 이것이 작금의 네 모습이 아니더냐고. 그러나 희극적인 것은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아니라 '세상'일 뿐이라고.

이렇듯 《곰씨와 오리군》역시 눈물겹다. 일단은 너무 재미있어서 눈물겹고, 백수를 위한 애정을 잃지 않고 파이팅 해보자는 작가의 본심이 또 눈물겹다. 아기자기한 그림 속에 인생을 모두 아는 듯, 사랑을 모두 아는 듯 흐느끼는 카툰에세이와는 다른 책이다.

'오륙도'와 '사오정', '삼팔선'과 '이태백'이란 신조어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여, 모조리 벗지 못하겠다면 세상을 통째로 벗겨 버려라. 경전 같은 말쑤는 'Let it be'가 아니라 바로 'Full monty'다. ☞

취재 박용두 기자